

“코세페”는 중기·농어민과 함께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30.84 (-13.07)	↑ 금리 (국고채 3년)	0.917 (+0.009)
↑ 코스닥	783.73 (+5.71)	↓ 환율 (USD)	1125.50 (-2.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11월1일~15일...광주·전남 유통가 분주



27일 신세계백화점 직원들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주간에 내놓은 ‘신세계 상생꾸러미’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이달 30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코리아 패션마켓 시즌 2’와 ‘우수 중소기업 특별전’ 등을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농가 ‘상생꾸러미’·중기 기획전 롯데아울렛 수완점 등 8개 계열사 ‘메가 세일’ 전통시장 500만원 경품...지자체 축제 연계도

전국 유통·제조·서비스 기업을 망라한 대한민국 소핑주간 ‘코리아 세일 페스타’ (11월1일~15일)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도 행사 준비에 분주하다.

광주신세계는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행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신세계와 강남점과 센텀시티점, 대구신세계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코리아 패션마켓 시즌 2’ 행사를 연다.

참여 브랜드는 갤럭시, 갤럭시라이프스 타일, 캠프리지, LAP, 보니스파크, 버커루, TBJ, 카운테라샤츠, 와이드앵글, 모노크롬 등이다.

이들 브랜드는 1층 행사장에서 최대 60% 할인율을 내걸고 의류상품을 선보인다.

다음 달 6~12일에는 지역 농가와 중소기업이 만든 가공식품을 담은 ‘신세계 상생꾸러미’를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천연 꿀과 유기농 매실청 등 5만원 상당 가공식품을 담은 상생꾸러미 1만 개를 신세계 신한카드로 구매할 때 이를 1만원에 판매한다.

다음 달 6일부터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그 전날 오후 6시부터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앱에서 사전 구매 신청을 받는다.

광주신세계는 매년 벌여온 ‘우수 중소기업 특별전’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에 진행한다. 이곳에서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만날 수 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코리아패션마켓 시즌 2’는 지난 6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서만 진행했지만 이번 행사 점포를 4곳으

로 늘렸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업계의 재고 소진과 현금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8개 유통 계열사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판매액 기준 2조원 규모 물량을 준비해 중소기업과 농어민 지원에 나선다.

롯데백화점과 롯데홈쇼핑 등은 패션 의류와 잡화, 리빙 등 중소 우수 협력사의 재고 상품 250억원 어치를 매입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한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과 월드킴프 등 전국 아울렛 20개 점포에서는 3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메가 세일’ 행사를 하고, 롯데마트는 주방 인테리어 상품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롯데하이마트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전용 모델을 사면 최대 20만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를 한다.

동구 남광주해뜨는시장은 총 500만원 상당 경품을 내걸었다.

상인회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100명에게는 라면 한 묶음을 선착순 증정한다. 또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200만원권(1명)과 50만원권(2명), 20만원권(5명)을 준다.

한편 5주년을 맞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올해 처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광주에서는 ‘광주세계김치팬션 축제’와 연계한 할인행사와 김치요리교실 등이 온라인상에서 11월2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전남에서는 ‘행복나눔 전남 농특산물 세일 페스타’를 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장철 앞두고 배추·무값 하락

배추 포기당 4천원 내린 5천원 무 1개 2500원...1천원 떨어져

품목	가격(원)	동락률(%)
배추 1포기	5000	-44
무 1개	2500	-29
풋고추(100g)	800	-11
대파(1kg)	3300	-11
방울토마토(1kg)	9500	+19
특란 30개	4660	-2
고등어 1마리	2800	-7

(26일 기준·2주전 대비)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포기당 평균 가격이 2주 전보다 4000원(44%) 가량 내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6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주요 농산물 소매 가격을 조사한 ‘얼마오 2018호’를 27일 발표했다.

가을철을 맞아 출하 물량이 늘어난 배추와 무는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다.

배추 1포기 가격은 2주 전 9000원보다 4000원(44%) 하락한 5000원을 나타냈다. 1년 전(6000원) 보다는 17% 낮은 가격이다.

무 1개는 2주 전(3500원)보다 29% 내린 2500원에 팔렸다.

상추 100g은 14%(-100원) 하락한 600원에 거래됐다.

풋고추(100g)는 800원, 대파(1kg)는 3300원으로, 2주 전보다 각각 11% 떨어졌다.

이는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생산량이 늘고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aT 측은 설명했다.

과일 가운데 방울토마토는 생육기 흐린 날씨가 잇따르고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1kg 가격이 9500원으로 2주 전보다 19% 올랐다.

특란 30개 가격은 2% 내린 4660원, 고등어 1마리는 7% 하락한 2800원에 팔렸다.

aT 관계자는 “앞으로 2주 동안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김밥 부재료 등 일부 품목의 소비가 다소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출하지역 확산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와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에 비해 나들이객 감소 등이 예상돼 가격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

28일~11월 1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광주·전남지역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시와 전남도,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반기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는 우수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청년구직자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매

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채용정보 플랫폼인 잡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개최되며,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채용관 등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150여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사이트에서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참고자료, 이력서 양식, 면접답변,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조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지역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구직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수출경쟁력 강화 FTA활용·관세환급 실무 교육

광주FTA활용지원센터 내달 5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FTA 활용지원센터’는 오는 11월 5일 지역기업의 수출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 및 관세환급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일 광주상의 지하교육장 2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FTA 활용능력 향상과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설됐다.

관세환급제도는 기업이 수출물품에 투입된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

출 기업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다.

관세환급의 개요와 관세환급의 방법, FTA 개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류 등을 중심으로 김현실 관세사가 7시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인증수출자 점수’를 제공하는 올해 마지막 FTA교육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준비중이거나 관심이 필요한 수출기업에게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상의 홈페이지 교육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백기용 기자 pboxer@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